

물 색깔 없다



홍순기

행정사무관
국립환경연구원 연수부 교육과

유년 시절을 나는 서울 송례문(남대문) 밖 서부역 부근에서 살았는데 이때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나의 행동 반경은 자하문(세검정), 청계천 광고 부근, 마포 쪽 한강이었으며, 대개 장난치며 걸어서 두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여름에는 주로 자하문 밖에 자주 놀러갔는데 가다가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거나 검정 고무신으로 송사리를 잡으면서 하루를 보냈다. 배가 고프면 달리는 차 뒤에 매달리거나 시내버스에 몰래 타던지 걸어가면서 절약한 심환, 또는 나무에 올라가 매미, 잠자리, 장수하늘소 등을 잡아 곤충채집하러 온 부잣집(?) 아이들에게 팔아서 벌은 심환으로 참외나

수박은 엄두도 못 내고 요즈음 아이들은 거저 주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의 썩은 능금(탁구공 보다 약간 작은 사과)이나 짓무른 자두를 사서 맛있게 먹곤 하였다. 어떤 때는 과수원 울타리를 넘어 서리(떼를 지어 주인 몰래 훔쳐먹는 장난)하다 들키기도 하였는데 잡혀서 밭길로 채이거나 손으로 또는 막대기로 얻어맞고 “다시는 안 그럴래요” 하고 울면서 용서를 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짓을 반복했던 惡童時節, 그때만 하여도 지금의 서울 서계동 소아병원 자리에는 서울역에 도착한 화물을 운반하는 馬車 대기 장소가 있었지만 작은 시냇물 하류 쪽 부근 다리 밑에는 각설이 패들이 살았

다. 어린이는 거지, 좀더 크면 양아치, 우두머리는 왕초라고 부르는 조선 시대의 다리 밑에 살던 판꾼의 후예들이다. 그 시대에는 어린 판꾼을 각정이라고 부르며 판꾼의 우두머리를 꼭지 또는 꼭지판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밥을 빌거나 줌도둑이 생업이며 무리 지어 哀慶事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민가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 대책으로 그들에게 청계천 등 하천에서 미꾸라지나 뱀을 독점으로 잡아 팔아 生計에 보탬이 수 있게 하였다. 때로는 그들 중에서 재주(칼춤?)있는 자를 골라서 중죄인의 목을 베는 일을 시켰는데 이들을 “망난이” 또는 “휘갱이”라고 불렀다. 이때 죄수의 연고자들로부터 기왕에 죽을 목숨이지만 刑 집행 때 고통을 덜 받도록 빨리 목숨을 끊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푼돈도 챙겼으며, 좌·우포도청의 기찰포교(刑事)의 염탐꾼 노릇도 했다. 일종의 國事に 참여한다고나 할까? 이러한 판꾼들의 생활 터전인 다리 밑 시냇물은 당시 인구도 적었지만 그들의 행패가 두렵기 때문인지 오염이 되지 않아 악취도 없었고, 흐르는 물은 얻어온 밥이나 반찬을 끓일 때 쓸 수 있었으며 물가에 샘을 파서 그냥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판꾼이나 각정 후예들인 각설이 패들은 염천교 부근 시장에서 자주 보았는데 “♪...이래도 이놈이 정승판서

의 자제로 팔도감사를 마다하고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로 나섰네...푸푸 부품바♪”하는 말도 안되는 타령으로 구걸을 하더니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국토건설단, 재건대원, 고아원 등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6.25전쟁 후 청계천-청계천은 일제 시대 지은 이름으로 조선 시대 이전에는 개천(開川)이라고 불렀고 광교, 오간수교, 수포교 등 이십여 개의 다리와 대부분의 다리 밑에는 판꾼들이 살았다. 서울시 개발과 더불어 청계천은 복개하여 폐천(閉川)이 되었지만 요즈음 開川論도 있다-등 냇가에 피난민과 고향을 등진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都市貧民들의 판자 또는 천막집이 들어서면서 장마 후에나 맑은 물을 좀 볼 수 있더니 언제부터인지 길로 변하여 그것조차 못 보게 되었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당산철교 건너 노들나루 부근에서 상투잡이, 콧수염, 덩석부리, 양복쟁이 어른들이 섞여 “노들 강변에 봄 버들이 휘이 휘이 늘어진 가지마다...♪”하고 덩실덩실 춤추던 모습이다. 70년대 중반까지 만 해도 광나루와 뚝섬유원지에서 수영을 할 수 있었지만, 약 30년이 지난 요즈음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시 民證을 갖고 수도권꼭지를 뺄고 산다는 자랑 섞인 말과 ~를 물쓰듯한다는 말보다 “수질 오염 云云...”하는 소리가 더 커지더니 한술 더하여 물을 절약하

라고 한다. 내가 물 절약을 실천하여 보자는 절실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다세대 주택인 우리 집에는 네 가구가 사는데 전기 계량기는 네 개이지만 수도 계량기는 한 개뿐이다. 수도 요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무조건 (고지서 요금 ÷ 전체 식구 수) × 세대별 식구 수 = 세대별 요금으로 계산하여 내다보니 그 요금이 보통이 아니었다. 옥상 위에 난온실과 오십여 개의 수목 분재, 채소류를 수확하는 2평정도의 밭에 주는 물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가끔 채소류를 나누어 준다해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찝찝해 하던 것이 물 절약 실천동기가 되어 이렇게 실천하여 보았다. 첫째, 난온실에 물을 주게 되면 배수관을 타고 車庫 뒤 울타리 안에 있는 대추나무와 한 평 정도의 더덕 밭으로 흘러가게 하여 재사용하고, 둘째, 재활용 앵글과 폐유리로 만든 盆裁臺 위의 분재에 물을 주고 아래에

서 받아 채소밭에 다시 주며, 셋째, 양변기 水槽에 벽돌 한 장을 넣어 그만큼 물을 절약하려고 했으나, 웬지 잘못 다루다 양변기가 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1.8리터 패트병에 물을 담아 벽돌 대신 넣었더니 안정감은 물론 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세면장에서 사용된 비교적 깨끗한 물은 옥조에 모아 두었다가 초



초벌 세탁을 위한 허드렛 물을 모은다

벌 세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너무 심하다고 가족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식탁 위에 놓인 3.6리터 패트병과 깔때기이다. 그 용도는 컵이나 그릇으로 먹다 남은 물을 모아서 분재에 주는 것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쪼잔하기가 이를 데 없다며 가족들은 치우고 나는 다시 놓기를 요즈음도 반복하면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환경법” 화두를 無等等의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참고로 수질오염 방지 및 물자와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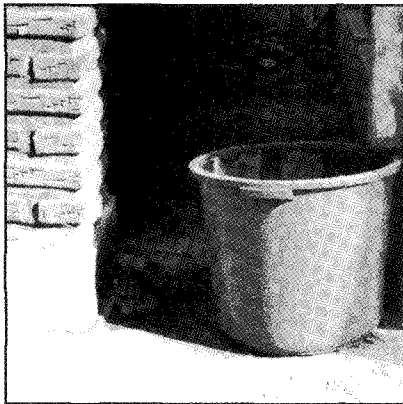
옥상온실에 주었던 물이 흘러 나오는 배수관을 연결하여 대추나무와 밭에 준다.

지 절약에 대한 나의 실천은 비누 한 면에 은박종이 붙여 쓰기, 치약 광고 그림 보다 치약을 1/4만 쓰기, 또 겨울에 거실의 공기(약25도)를 자동센서를 이용하여 환풍기를 돌려 영하로 떨어질 때 월동하는 蘭 온실에 주입함

으로서 보일러의 경유를 완전 절약하는 것이다.



△ 거실내의 공기를 알미늄 연통을 이용하여 옥상 온실로 붙어 넣어 당시 설치했던 보일러를 폐기했다. 전기료는 거의 미미한 정도(천원미만)



△ 옥상위에서 흘러내린 물을 재사용하기 위해 받는다.



▷ 컵이나 먹다남은 물을 모으는 식탁위의 병과 깔때기 문제의 장치(?)

이 글을 시작할 때, 환경 가족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건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물로 변해지기를 기원하였습니다. 3회에 걸친 나의 미숙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벌거벗은 글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과를 아울러 드립니다.

